

日本의 農林省 農業總合研究所

金 東 熙(副院長)

位置：日本 東京都北區西ヶ原 2-2-1

1. 設立背景

第二次世界大戰이 끝나는 1945년까지 日本의 農政은 帝國主義的 膨脹政策을 뒷 받침하기 위한 食糧增產이 中心課題이었다. 따라서 農業研究에 있어서도 쌀을 비롯한 食糧作物과 養蠶(輸出)等의 增產技術開發에 重點이 주어졌고 農業에 관한 社會科學的研究는 기껏해야 米麥과 養蠶等의 生產費調查와 農業薄記程度가 고작이었다. 農作物은 있어도 農業經營이라는 農業主體를 重要視하는 風潮는 아직 빛을 보지 못하였고 日本農林省에는 農林畜產業은 있어도 經濟學은 그림자도 없었다.

그러나 敗戰을 맞은 1945년 8月以來 日本은 聯合軍司에 의하여 많은 政治經濟改革이 强要되었다.

平和民主憲法이 公布되고 農地改革이 斷行되었으며 農村民主化가 促求되었다. 食糧은 不足하여 米穀統制가 不可避하게 되었으므로 正確한 統計整備와 米價파리티方式採擇等이 必要하게 되었다. 또 農地改革이 되어 地主가 没落하여 農村社會의 構造가 달라졌으므로 農村의 再編問題 그리고 市場經濟下의 農業經營의 諸問題가 當面한 農政課題로 登場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1946年 12月 農業에 關한 社會科學의 研究擔當機關으로서 農林省傘下에 農業總合研究所가 發足하게 되었다. 初代所長에는 日本의 農業經濟學界의 泰斗인 東京大學 東畑精一(도바다 세이이치) 教授가 就任하였다. (兼務)

東畑教授는 그 後 10年間 所長으로 있으면서 이 研究所의 基盤을 다지는 데 큰 功을 세웠다. 創立時 研究要員은 軍에서 除隊했거나 海外에서 歸還한 農業經濟學徒를 主軸으로 하여 農學 또는 工學을 專攻한 사람도 끼워 老長과 褚은이 等雜多한 構成員으로 出帆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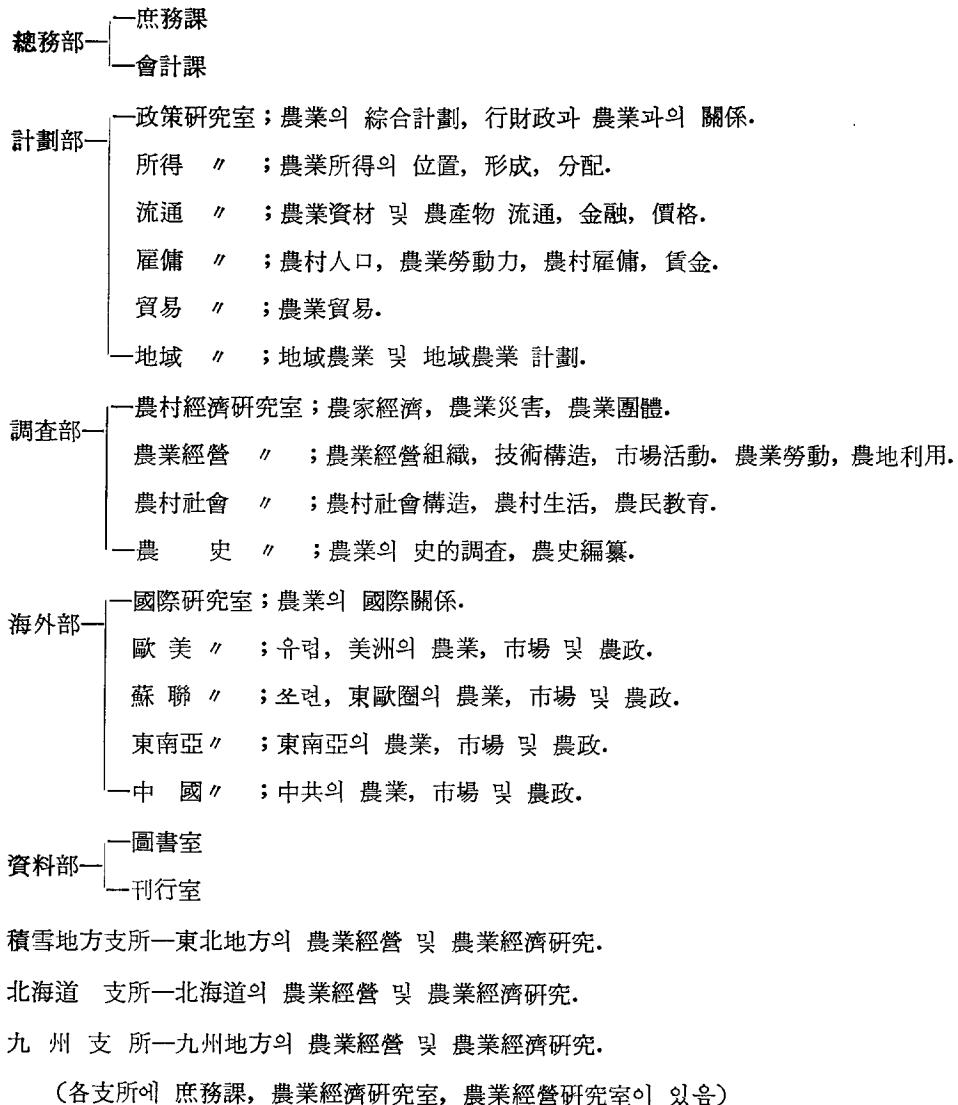
2. 職 制

下部組織으로서 5部 3支所가 있으며 所長은 1966年까지 大學教授가 兼任하다가 1967年부터 專任으로 되었다.

人力配置를 보면 本支所를 合하여 研究職이 60名, 行政職이 40名, 計 100名 水準이다. 國家機關이기 때문에 農林省 傘下他機關과 人事交流를 하고 있으며 特히 研究職은 大學과 交流도 하고 있다. 研學協同과 產學協同을 위하여 參與, 專門委員, 駐村研究員制度를 두고 있다.

參與에는 農業經濟學과 關聯分野의 元老級學者 10名內外를 推薦하여 顧問役割을 맡게 하고 있다.

總合研究所의 機構



專門委員은 農業經濟學分野의 生年學者를 委嘱하여 研究實務에 諮問을 받고 있다.

駐村研究員은 1947年부터 始作된 制度로서 農村의 動向, 農民의 政策反應, 農村에서 的 세로이

發生 하고 있는 現象 또는 試圖에 대한 情報를

蒐集하고 地方에 문화 있는 貴重한 資料發掘을

위하여 篤農家 또는 地方有志를 委嘱하여 支所

中心으로 會合도 가지며 特定 課題에 대하-

여 報告도 받고 있다.

3. 運營

研究員會議와 各種委員會：農總研은 創立理念으로서 “研究의 自由”를 重視하고 있으며 이 傳統은 現在까지도 지켜져 오고 있다. 따라서 機關運營도 民主的 體制를 갖추고 있다. 研究職들의研究所運營參與와 研究推進機構로서 研究員會議가 있으며 構成員이 되려면 農總研의 研究刊行物(季刊誌와叢書)에 1篇以上的 論文을 掲載하여야 하며 事務擔當을 위하여 幹事會(3部代表는 3~6個月씩 交替)를 두고 있다. 研究員會議의 實務機構로서 運營委員會, 研究會, 編輯委員會, 圖書委員會, 研修委員會等이 있으며 各委의 幹事는 研究 3部에서 한사람씩 差出되어 3~6個月씩 맡고 있다.

農林行政官의 研修：이 研究所의 또 하나의 特色은 農林省의 經濟企劃關係者에 대한 長期研修事業이다.

1950年부터 農林省의 委託事業으로서 每年 農林省에서 4~5年 經歷을 쌓은 젊은 現職公務員 10餘名을 받아 10個月동안 濃密한 訓練을 實施하고 있다. 研修生은各自의 擔當業務와 趣向에 따라 個別研究課題를 가지며 農總研의 中堅研究職(室長級)이 각研修生의 輔導員이 되어 指導한다. 講議는 基礎課程과 特別課程으로 나누어지며 前者的內容은 近代經濟學, 耕地經濟學, 計量經濟學, 統計學, 經濟政策, 農業經濟, 農業經營, 經濟史, 社會學等 多樣하게 짜여지고 한 科目에 16時間程度 配定되어 大部分 大學教授들이 分擔한다. 特別課程은 當面한 農業問題, 經濟問題等 時事的인 内容으로 이름있는 外部講師를 招聘하고 있다.

이러한 研修事業을 위하여 前述한 研修委員會가 있어企劃과 評價를 하며 研修月報를 刊行하고 있다. 이러한 研修事業의 結果 農林省의 經濟企劃關係官의 多數가 이곳을 다녀갔으며 經濟行政과 經濟研究 사이의 理解, 協助關係를 圓滑히 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4. 研究活動

日本農林省의 試驗研究事業은 具綜合調整機構로서 本部에 農林水產技術會議가 있으며 事務局과 研究諮詢委員會(非常任으로 各界人事로 構成 月 1回 會合)를 두고 있고 事務局內에 專門分野別로 調整官이 있어 研究事業에 관한 企劃調整과 弘報를 맡고 있다. 따라서 自然科學的研究를 맡은 各試驗場과 農總研과 같은 社會科學的研究機關이 모두 이 技術會議의 綜合調整을 받는다. 一般的으로 研究는 經常研究와 特別研究로 나누어지며 試驗場에게는 指定試驗(育種研究等)이 주어지고 있다.

經常研究는 農總研과 같은 特定研究機關의 「重要研究目標」에 準하여 各研究員(研究室)이 해마다 比較的 自由롭게 選定하는 比較的 작은 研究課題이며, 特別研究는 技術會議에서 指定하거나 또는 몇몇 研究機關이 協同으로着手하는 比較의 큰 研究課題이다.

專門分野別로 年 1回 總括檢討會를 가지며 中央과 地域單位로 해마다 特別研究成果發表會를 열어서 農業行政, 試驗研究 및 指導事業關係者가 함께 參加하고 있다. 農業經營과 土地利用問題에 관하여 亦是 農林省傘下機關인 農業技術研究所에 農業經營土地利用部가 있어 研究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研究所는 位置가 바로隣接하고 協調도 잘되어 重複되는 研究는 하지 않고

있다.

研究刊行物은 所內研究陣의 研究成果를 담은 「農業總合研究」를 季刊하고 있으며 主要한 큰 研究結果는 研究叢書로서 單行本으로 내고 있다. 그 밖에 總合基礎資料, 展望研究資料와 各支所에서 研究資料를 別途로 내고 있다. 또 每年 또는 1年마다 그 동안의 諸活動記錄과 研究成果要約을 年報로서 收錄刊行하고 있다. 農總研의 研究活動은 必然的으로 日本 農業과 國民經濟의 發展에 따라 提起되는 諸問題의 樣相에 따라 變化해 왔다.

戰後 初創期에는 農地改革後の 農村再編에 關聯된 諸制度改善, 糧穀管理制度, 農業統計整備等이 主要한 焦點이었다.

1950年 後半에 들어서면서 그 동안 研究委員들의 近代經濟學的 訓練이 쌓여지고 또 農業經濟와 政策問題가 점차 複雜해짐에 따라 計量的研究에 置重하게 되었다. 한편 農業構造의 變動, 農產物流通, 地域農業, 農業史와 農村史 그리고 美洲, 中共, 쏘련, 東南亞 等地의 海外農業에 관하여 事例의이며 叙述의 研究實績도 많이 내고 있다.